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시상중계 ⑧

주제 : 선 수행의 요체

번뇌망상만 털어내면 본래 부처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상 백고좌

世尊(세존) 未離兜率 已降王宮(미리도솔 이강왕궁)이요, 未出母胎 度人已畢(출모태 도인이필)이라. 세존께서 도솔천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가비라 왕국에 태어나시오, 마하부인의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중생을 다 제도하여 마쳤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이 도리를 안다면 오늘 선 법문은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냥 내려가기가 서운하니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위한 선 수행의 요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심자를 위해 군더더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들은 왜 불교를 믿고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머리로 아름답게 아는 것 말고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절대 행복은 한번 열리면 영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만 참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행 따라 남이 하나, 참선을 하면 좋다고 하나, 한 번 해보는 그런 식의 참선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참선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참선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 불교를 제대로 믿고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이렇게 생사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사윤회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사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생사윤회를 믿는 사람들도 가운데에도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으며 다음 생에 태어난다는 식으로 생사윤회를 이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틀렸고 두 번째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공부해야 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생사윤회 속에서 받게 되는 괴로움,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 참선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론과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론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 행복감은 머지않아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거짓 행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이 충족될 때에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안 되면 불만족 즉 괴로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런 거짓 행복감으로는 결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열리는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참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절대 행복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올바른 수행, 즉 참선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 수행에 있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이 신심에 대해서는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도 찬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온갖 착한 법을 길어 기르며, 의심을 끊고 애착에서 벗어나 열반의 무상도(無上道)를 드러낸다." (화엄경)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 무상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

다. 리생명인데 이것이 연기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부처라니까 부처님이 실체가 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고 텅빈 진공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참마음이요, 참마음이 참 부처님이다 이 뜻입니다.

우주의 실상이 진공심으로 되어 있는데 텅 빈 이 진공심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어떤 현상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묘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마음의 내용은 지금 말한 이런 정도로 다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 이 내용을 다 계속해서 말씀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얀색 백색이 뿔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참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심입니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탐심나와

두 번째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모습이 위에서 말한 심신의 내용대로 본래 부처인데 다시 말하면 나의 참모습이 부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때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조그만한 것에 매달려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어설픈게

'신심 발심 수심' 절실해야

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더라도 전원이 콘센트가 꼽혀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작동이 안돼요. 이와 같이 신심은 마치 전원에 콘센트가 꼽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심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로 신심을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우리의 참 마음자리, 이것이 본래부터 부처님과 똑 같은 것이다 이런 애급니다. 정확히, 아주 정확히 한점 오차 없이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소식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맨 처음에 '아! 기특하고도 기특하구나. 일체중생이 여러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그런데 분별방상으로 인하여 증득치 못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다.

이것은 위대한 인간선언입니다. 사실 생명선언이에요. 이 말은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분별방상으로 인해서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한다. 깨달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양면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중생이 번뇌 망상 때문에 이렇게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입니다.

정리해서 말한다면 신심 이것은 바로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 이렇게 믿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연기적 진리생명이다. 진

리롭게 고달프게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부처님 진리 생명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자각 위에서 나도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자.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가 신심에 대한 정리가 되어 신심이 크고 무월할 때 이 두 번째 발심이 되는 것이지, 신심이 확립이 안 되어있는데 발심이 되겠습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은 발심도 안 됩니다. 신심이 크면 발심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발심이 크게 되어야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수심(修心), 마음 닦음입니다. 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음 닦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마조도일선사가 계셨는데 신지식 80 여명을 배출할 정도로 대선지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스승은 남화화향선사로 아주 유명한 선사인데, 그 밑에서 마조도일선사가 공부할 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마조도일선사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스승인 남화화향선사가 마조스님 앞에서 기왓장을 깔고 있었습다. 이상해서 "스님 기왓장을 왜 깔고 계십니까?" 하니 "을 기왓장을 깔아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조도일선사가 "아니 스님, 기왓장을

지환 스님은 참선수행을 바르고, 간절하게,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환(智幻) 스님

서울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바니 불교화생회에 들어가 불교에 입문 하였고 대학생 불교 연합회 구도부 시절 성철큰스님을 만나 선 법문을 듣고 발심하여 1967년 해인사에서 출가, 1969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해인사선원 성철큰스님 회상과 백암사 운문암 서울큰스님 회상에서 오래 정진하다가 제법선원에서 참선 정진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금당선원장을 맡았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기본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아자열매)왁스로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 입니다.」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 1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2 상용(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3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4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5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의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 힘으로 건강을

금강염주를 발이나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강한 기와 93%의 생광광선, 음이온등이 발산되어 현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OA사무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며 도시의 좋지 않은 공기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건강을 도와드립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피로회복, 신경안정, 스트레스해소, 혈액순환 등에 효과 있는 세계유일의 금강염주입니다. 밝은 지혜와 금강의 강한 빛이 발산하는 금강염주는 기도 정진시 일념무야 하면 부처님 가피로 고시준비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뜻을 이룰수 있는 신비의 금강염주입니다.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의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세계 유일의 희귀 금강염주 이 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풍채남복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의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점안식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 * 12단주와 108단주 1set 가격 195,000원
- *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북주 소성명암암주(주)유해(주)소로로 전라북도 진안군 비안면 점안식용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6/0 406호)

생광광선과 금강의 강함빛이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 재수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연분을 찾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투병중인 분
-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점안식용이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문 편에 합니다.

조계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4월11일-조계사 대웅전)



지환 스님의 법문을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날 법회에 참석자들은 1시간30분동안 법문에 빠져들었다.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라고 묻자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나" 하신 겁니다. 그 말에 마조도입선사가 알아차렸습니니다. "기왓장을 간다고 부처가 되나" 이 말에 확 깨쳤습니니다.

어떻게 보면 좌선을 하지 말라는 말 같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와 중생을 이원적으로 보고 "나는 지금 중생인데 좌선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좌선을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이 반야(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지혜와 선정이 등지(等持)된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에요. 이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꾸준히 진리 찾아야

말씀 하셨습니다.

"정(定)과 혜(慧)로서 근본을 삼나니 먼저 혜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혜가 한 몸이요 둘이 아니니 정은 혜의 체요 혜는 정지 작용이다. 정과 혜는 등불과 같아서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빛이 없나니... 이 정과 혜 또한 이와 같으니라"

화두를 잘 한다는 말은 성성(惺惺·지혜의 측면) 적적인(寂寂·선정의 측면) 가운데 화두의심이 간절하게 묻쳐 있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화두의심은 큰불덩어리 같아서 큰불덩어리에 나비나 벌(망상)이 접근 할 수 없는 것처럼 간절히 화두의심하는 가운데 망상은 저절로 쉬어지게 되어있는 가장 힘 있는 수행법이 간화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의심, 큰 발심(本心), 큰 의심(화두의심)을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무야, 공, 연기의 이치를 잘 알아 자기(예고)를 비우고 자비심과 소욕지족으로 용심(用心)을 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의 삶이 탐욕스럽고 집착하고 원망과 분노 등으로 얼룩져, 아무렇게나 살면서 화두만 들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수행이 안돼요.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리망연(但離妄緣)하면 죽여여불(卽如如佛)'이라. 망상만 놓아버리면 본래부처라.

망상을 따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화두만 챙기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수행의 원리대로 하여 화두만

간절하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화두'

'묻고 답하기' 현장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크게 의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깨달음에 크게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깨친다는 것은 미세 망념까지 완전히 공해져 버린 상태를 말 합니다 이것을 구경각(究竟覺)이라고 합니다. 그 구경각이 되기 전에 변화가 오는 데 이것을 작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의심하면 의심이 강하게湧쳐 번뇌 망상이 작용을 못하고 의심의 극점에서 마침내 폭발하는데 이때 확철대오 하게 됩니다. 이것을 큰 깨

크게 의심하면 번뇌가 작용 못하고 탁 터져 확철대오

침, 구경각, 돈오라고도 합니다. 의심이 작으면 한 소식이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것을 작은 깨달음 이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구경각 즉 돈오만이 바른 깨달음입니다. 크게 의심하는 방법은 제가 말한 법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불교를 접하면서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화두입니까.

-그것은 화두가 아닙니다. 화두는 우리가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고 싶어 의심하는 공안으로서 사랑 분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는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하나의 원리로서 이해해야 할 명제이지, 화두는 아닙니다.

간절하게 의심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하루 1시간씩이라도 간절하게 하면, 그리고 시간을 늘려서 간절히 하다보면 나중에는 빨라지면서 밥 먹으면서 다 됩니다. 그러면 화두를 착 두는 순간에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진리 생명의 힘으로 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이 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간절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아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꾸준히 하다보면 쉬워집니다. 공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고 잠선하는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잡힙니다. 아주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죽으면 죽지 하는 용맹심으로 바로 간절하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정리=한명우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법문, 테이프르 들으세요"

고우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2월 15일~5월 9일 진행되는 선원장 초청법회의 법문을 테이프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의:조계사(02-732-2115), 여시이문(02-737-8881) 법회 동영상 중계 www.jogyesa.org www.buddhanews.com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16>



욕망이 고통의 근원인 이유

보다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사성제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에서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며 살아야 한다. 서로의 교류를 통해 일종의 가치체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지나며 명예, 권력, 재력 등을 중시한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대상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 이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다. 따라서 이런 세속적인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다. 권력을 먼저 쉰 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갖고자 한다. 법을 어겨 가면서 권좌에 앉은 사람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고 경쟁자는 그 권좌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투쟁관계 속에서 슬한 권모술수가 존재하게 된다.

보다는 이런 상황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중아한경>의 <포리다경>에서 붓다는 욕망의 위험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자.

많이 달려 있는 과일 나무가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굶주리고 지쳐 그 과일을 먹으려 한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나무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달려 있다. 나는 배고프고 기력이 떨어져 저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러나 이 나무 밑에는 저절로 떨어진 과일이 없어 먹을 것도 없으며 그리고 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다. 나는 이제 이 나무에 올라가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곧 올라가 과일을 따다. 그때 다시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지쳐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을 먹고자 하여 아주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왔다. 그는 생각했다. '이 나무에는 과일이 탐스럽게 많이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나무 밑 주위에는 저절로 떨어진 과일이 없어 배불리 먹을 수도 없고 또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다. 또한 나는 나무에 오르지도 못한다. 나는 이제 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 과일을 따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렸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나무 위에 있던 사람이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무가 땅에 쓰러질 때에 과연 그 필이나 몸통이 중 다른 부분이 부러지지 않겠느냐?

한정된 대상을 두고 경쟁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살인적인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재산, 권력,

한정된 부·권력 차지하려고 경쟁에 몰두 즐거움은 순간... 집착하면 고통 뒤따라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고깃령 어리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까마귀나 솔개가 그것을 들고 달아나면 나머지 다른 까마귀나 솔개들은 앞다투어 그 뒤를 쫓는다. 만일 이 까마귀나 솔개가 그 조그마한 고깃령이를 재빠르게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까마귀나 솔개들이 앞다투어 계속 쫓아오지 않겠느냐?"

고깃령이라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까마귀와 솔개들은 한결같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자가 많으면 당연히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먹이를 위한 싸움은 생명의 위협으로, 살생이라는 악행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제자들에게 욕심은 고깃령이를 차지하려는 것과 같이 즐거움은 적고 괴로운만 배가 고프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배를 채우고 난 뒤에도 음식의 맛에 탐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겪게 되는 치열한 경쟁으로 목숨이 위협에 빠진다는 교훈은 다음의 비유에서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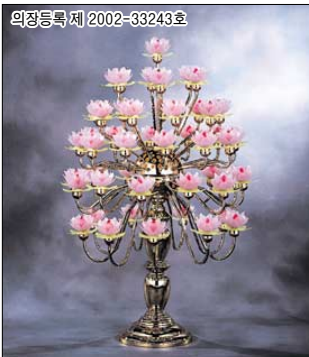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돈 문제로 자신이 부모를 살해하고 보혈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죽이는 일도 일어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지부진 흑색 비방이 난무한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물을 수밖에 없다.

보다는 그렇게 앎을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무상(無常)한 것으로 결국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러한 세속적인 대상을 추구하려고 인간됨을 쓰는 것일까? 일단 이런 대상을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위대해 졌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대상을 자신의 일부 내지 전부로 여기게 되어 획득한 만큼 자신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게 된다. 자신의 피와 삶이 될 만큼 동일시 하게 되어 세속적인 대상의 상실은 곧 자신의 상실로 여겨진다. 그럼 과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획득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해 지는 것일까?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육법등 (六法燈)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채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기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원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양품)

- ▶ 불계 고주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예(특 월라멘트)로 빛이 열등이 밝고 갠젠 요구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당합니다. (견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